

셀트리온,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주주환원을 40% 목표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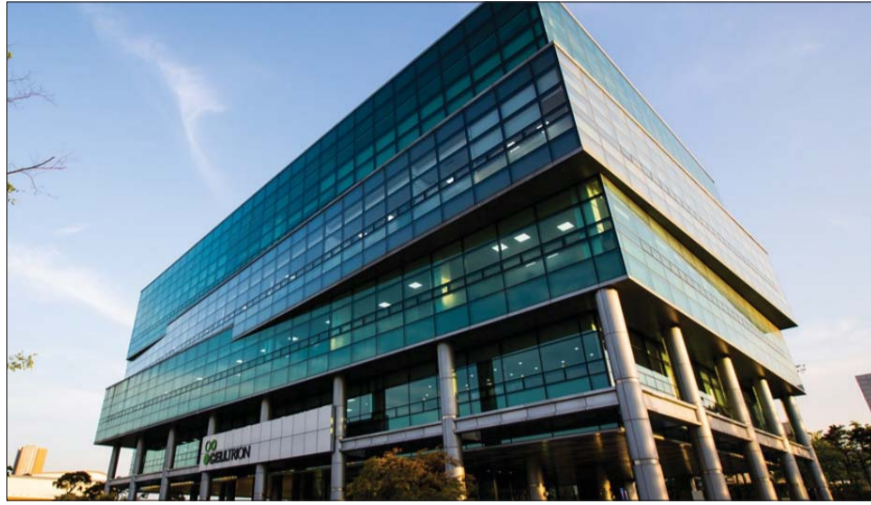
매출성장·수익성 개선 등 골자
2027년까지 연평균 30% 성장
“글로벌 빅파마” 도약 박차

셀트리온이 올해 매출 5조원에 이어 연 평균 30% 성장하고, 평균 주주환원을 40%까지 확대하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놨다.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의 ▲매출성장(연평균 매출액 30% 이상 성장) ▲수익성 개선(자기자본 이익률(ROE) 7% 이상 달성) ▲주주환원(3년간 평균 주주환원을 40% 달성) 목표를 골자로 구성했다.

매출액은 올해 목표 5조원을 달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규 제품의 빠른 시장 안착을 통해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특히 올해부터 수익성 개선 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4% 수준인 자기자본이익률을 7%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셀트리온은 ▲고(高)원가 재고 소진 ▲생산성 개선 ▲3공장 생산 확대 ▲기존제품 개발비 상각 종료 등에 따라 매출원가율(이하 원가율)은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말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직전 63%에 육박하던 원가율은 한 해 만에

45% 수준까지 감소했으며, 올 연말 분기 기준 20%대 진입이 예상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가율을 낮춰 2027년에는 연평균 20%대까지 개선된 원가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했던 글로벌 판권과 관련한 약 1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상각이 지난해 마무리된 데다, 올해부터는 외형 성장을 통한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반 성장을 위한 주주환원 계획도 대폭 강화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연결순이익 대비 평균 주주환원을 4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장기적으로 이익 대비 30%를 목표로 현금배당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보통주 1주당 현금 750원과 주식 0.05주의 동시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 배당금은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1,538억원 규모, 배당 주식은 약 1025만주가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신규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순조로운 포트폴리오 확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주환원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확고한 기업가치 구축과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투자자들과 동반 성장하며 ‘글로벌 빅파마 도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GC녹십자

큐레보 1.1억 弗 투자 유치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가 대상포진백신 ‘아메조스바테인’ 개발을 위한 1억10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체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금은 ‘아메조스바테인’ 임상 2상의 투여 대상 환자군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에 쓰인다. 큐레보는 올해 중순부터 70세 이상의 성인을 포함한 64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임상 3상의 최적 용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자금 조달은 유럽 생명과학 전문 벤처캐피탈(VC) 메디치의 주도로, 오비메드, HBM 헬스케어 인베스터스, 사노피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설립 투자자인 GC녹십자를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후속 투자와 다수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CJ올리브영은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MD ▲상품개발BM ▲백엔드개발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글로벌마케팅 ▲글로벌사업전략 ▲글로벌영업 등 23개 직무에 걸쳐 두 자릿수 인원을 선발한다. 채용 전체 직무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며 일부 글로벌 관련 직무는 ‘글로벌 전형’으로도 지원을 받는다.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내달 3일이다.

지원서 접수 이후 서류 전형 합격자들은 TEST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전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경 CJ 그룹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CJ CGV-삼성-하만, AI 기반 ‘미래형 영화관’ 만든다

3사 업무협약...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정종민 대표 “차별화 고객 경험 선사”

CJ CGV가 고객 맞춤형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 하만인터내셔널(이하 ‘하만’)과 손을 잡았다.

CJ CGV와 삼성전자, 하만이 ‘AI 시네마 혁신을 통한 미래형 영화관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스크린, 음향, 공간 등 각 부문에서 적용되는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



왼쪽부터 삼성전자 임성택 한국총괄장,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 하만 아마르 수바시 부사장(왼쪽부터) AI 시네마 혁신을 통한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이다.

CGV의 상영관 내에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네마 LED 스크린을 도입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하만의 입체 음향 솔루션을 적용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네마 공조 시스템을 비롯해 영화관의 다양한 공간에 환경 및 설비, 기기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고객 맞춤형 솔루션인 ‘스마트싱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마트싱스’를 적용하면 상영관 내 스크린 화면 밝기에 따라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관람객 수에 따라 온도 및 공기청정 기능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 LED 스크린은 기존 프로젝트 대비 6배 이상 밝아 영화뿐만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 다이닝 시네마 등 다

양한 형태의 프리미엄 상영관을 선보일 수 있다.

3사는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가며,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CGV가 진출한 해외 극장으로도 확대 영화산업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는 “영화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만인터내셔널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화관은 고객에게 영화 관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최성원 회장, 조직문화 혁신 팔 걷어

(광동제약)

주니어 보드 활동... “창의적 문화 조성”

광동제약 최성원 회장이 직접 이끌고 젊은 직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니어 보드(Junior Board)’가 활동을 시작한다.

광동제약은 ‘주니어보드’가 최근 17기 활동이 시작됐다고 18일 밝혔다. 광동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니어 보드는 청년 중역 회의다. 대리급 이하 직원들이 색다른 시각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이번 17기는 연구, 마케팅, 영업, IT 등 다양한 직군과 부서에서 선발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향후 1년 등



2025년 주니어 보드 17기 발대식에서 최성원 회장(가운데) 등 광동제약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동제약

안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최성원 회장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네수파립, 美 FDA ‘희귀의약품’ 승인

온코네티라퓨틱스

‘위암·위식도접합부암’ 지정

제일약품은 신약개발 부문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에 대한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 희귀의약품’ 지정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네수파립을 전이성 췌장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1b/2상, 자중내막암을 적응증으로 한 네수파립과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2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네수파립은 기존 파프 저해제 치료에서 내성 문제를 겪는 환자와 기존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암종에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췌장암을 비롯해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에서 유방암, 위암 등으로 신규 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수파립’은 췌장암 치료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온코네티라퓨틱스 측은 동일한 신약 후보물질이 두 개 암종에서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네수파립의 우수한 기술력과 약물 효과를 입증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오후

얼티밋 커버 데니어 쿠션

LG생활건강은 오후 ‘얼티밋 커버 데니어 쿠션(샤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오후 ‘얼티밋 커버 데니어 쿠션’은 피부 탄력을 개선해 주는 성분으로 하이드롤라이드 콜라겐, 수분 케어 성분 레이어링 히알루론산, 진정 케어 성분 블랙 트러플 추출물 등을 함유한다.

이번 신제품은 0.5호 단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21호를 기준으로 19호, 20.5호, 21호, 21.5호, 22.5호 등으로 선택지가 다양화됐다. 아울러 70데니어, 100데니어로 구분하여 피부 고민에 따라 커버 밀도를 맞출 수 있다.

/이청하 기자